

退位나 篡奪이나

—Richard II—

全 濟 玉

- 序
- | | |
|----------------------------------|-----------------------|
| I. 叔侄間(Richard II와 Gaunt) | III. Bolingbroke와 神授說 |
| II. 從兄弟(Richard II와 Bolingbroke) | IV. 王과 詩人 |
| | V. 篡奪과 Henry IV의 聖地行 |
| | 結 |

序

Shakespeare는 史劇을 10篇 著述하였는데 薔薇戰爭을 中心으로한 4部作이 2篇 그리고 따로 King John과 Henry VIII가 있다. 그리고 年代記대로는 執筆하지는 않아 Henry VI의 3部作과 Richard III를 먼저 쓰고 Richard II, Henry IV의 1·2部 및 Henry V를 다음으로 미루었다.

英國史에 있어 가장 論爭의 對象이 되고, 30년에 이르는 薔薇戰爭의 殃이 트는 時期를 골라서 史劇 Richard II를 執筆한 것은 Shakespeare가 炯眼을 지닌 大作家다운 面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Richard II의 王統을 살펴보면, Edward III(1312~1377)는 Edward(The Black Prince) John of Gaunt(Duke of Lancaster) Thomas Woodstock(Duke of Gloucester)等 七男이 있었는데 長男인 Edward가 Edward III보다 1年 앞서 別世했기 때문에 Richard II가 나이 10歲에 承重孫으로 即位하게 되고 叔父인 John of Gaunt가 攝政으로 後見人 役割을 하였다.

Richard II의 戴冠式은 英國史上 最高의 豪華燦爛한 것으로 그의 生活에는 恒時 이것이 傳統과 習性으로 되었으며, 또한 當時는 王權神授說이 믿어지는 때였으므로 王은 絶對君主로 法과 傳統을 無視할 수 있었고 阿諛輩들에게 둘러싸여 國庫를 蕩盡하였으니, 幼年에 登極하여 事物에 對한 判斷力이 없었고 在位 22年(1377. 71~1399. 91)이라 하지만 自意에 依한 國事處理를 못하고 있다가 後見人이 臨終하게 되니 反亂軍을

鎮壓하는데 쓴다고 그의 財産을 不法으로 沒收하는 등 지금까지의 報復이라도 하는듯이 그를 미워하고 復讐心을 나타내는 過度한 짓을 하다가 流配中인 그의 아들 Henry Bolingbroke에게 王權을 篡奪當하고 弑害되는 悲劇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Richard II 自身の 性稟도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되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聰明하고 敏感하며 詩作도 즐겨했으나, 말이 지나치게 많은데다가 淺薄放恣하고 自禍自招하는 面이 있었으니 安逸한 生活속에서 虛禮와 浪費만 일삼고 듣기 좋은 姦臣輩들의 甘言에만 귀를 기울이다 廢位에 까지 몰고온 것이다.

Richard II 를 읽고 感銘받은 것은 權力構造나 이것을 뒷받침하는 法的措置가 永久集權을 保障한다 하더라도 本人自身이 스스로 崩壞·滅亡의 길을 걷는다는 別道理가 없으며 有限한 生命으로 無限한 時間에 挑戰한다는 것이 얼마나 虛無한가를 잘 나타내며 權力은 外部의 侵功으로도 滅亡하는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自身이 自滅의 길로 向하는 일이 더욱 많다는 사실이다.

다음에서 Richard II 를 좀더 仔細히 살펴보고자 한다.

I. 叔侄間(Richard II와 Gaunt)

[Woe to the land when the king is a child]

이것은 Richard II 와 同時代人인 William Langland가 傳道書를 引用해서 그의 作品인 Piens the Plowman에서 한 말이다.

이것이 바로 나이 10歲에 王座에 오른 Richard II 뿐만아니라 東西洋을 가릴 것 없이 언제나 常通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李朝末葉 勢道政治는 生生한 歷史的 現實이었다.

어린王에게 近接하여 그에게 影響力을 끼치고 앞으로의 政治的 基盤을 構築하는데 有利한 地位를 占有하고자 하는 個別的인 政治的 野望達成이 그 基本을 이루고 三個派閥이 形成되어 있었으니 :

첫번째가 John of Gaunt로 그의 父王 Edward III 在世때부터 政權에 參與하였고 말뎡인 The Black Prince가 別世하고 父王은 이미 老衰하여 實質的인 王權을 代行하였으니 王位에 代한 野慾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으나, 世孫으로 承繼시키니 霧散되고 말았다.

그러나 王族中에서도 John of Gaunt의 Lancaster 家系들은 政治的 權力뿐만아니라 經濟的으로도 許多한 財産을 所有하여 莫強한 勢力을 形

成하였으며 그의 命令은 王令에 버금 갈 程度였다.

Gaunt가 新王 밑에서 3年間 攝政을 한 다음 王冠에 對한 主張을 더욱 確乎히 하기 爲하여 Spain에 出征했으나 失敗하니 一般人들의 嫌惡를 사게 되고 特히 Kent地方農民들이 1381年 農民亂때에 그의 London邸宅을 掠奪했다.

그러나 Gaunt는 1390年代 까지도 忠實한 王의 助言者로 남아있었다.

Richard II는 年少한 王이 叔父인 Gaunt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名目上の 王으로 있다가 衰亡한 것으로 돌리기 쉬우나, 1381년에 있었던 農民亂과 1384년에 死亡한 John Wyclif의 最初의 新約聖書翻譯等에도 많이 功獻한 바 있고, 特히 農民亂 때에는 젊은 王이 親히 Wat Tyler와 面接하고 要求를 承諾하는等 業蹟을 세워 勇名을 날리게 되고 次次 成年이 됨에 따라 自身の 自治能力을 爲해서 親友中에서 Michael de la Pole과 Edward de Vere 등을 골라 爵位를 授與하고 側近者로 登用하였으니 이들이 Gaunt 다음가는 勢力圈을 構成하였다.

이들은 王과의 個人的 因緣으로 登用된 만큼 王으로 하여금 後見政治에서 獨立하기를 功獎하고 激勵하였다. 따라서 王의 過度한 行動과, 이것을 支持하는 이 무리들 때문에 王과 議會間에는 서로 不平 不滿이 頻發하였다.

1386年 以後에는 Richard II의 끝의 叔父인 Gloucester가 代行하였는데 이들은 王의 稅政을 非難하고 議會는 王의 側近인 de la Pole을 彈劾하기에 이르렀고, 政務는 새로 構成된 評議會가 掌握하게 되었다.

Richard II도 이에 맞서 王黨派를 四方에서 糾습시키고 Sir Robert Tresilian이 主導하는 法官들의 一團을 合流시켜 de la Pole의 彈劾을 非難攻擊하고 새로운 評議會가 王의 特權을 侵害하는 叛逆的 欺瞞을 하고 있음을 列擧하였다.

이때에 Gloucester가 主軸이 되고 Warwick와 Arundel等 名門 軍閥等이 王의 寵臣들의 謀叛을 議會에 提出하고 自身들의 軍隊를 集結시켰는데, 여기에 다시 Bolingbroke와 Mowbray等이 加勢하여 王에 反對하는 勢力을 形成하게 되었다. 이 軍隊가 de Vere가 指揮하는 王軍을 敗北시키고 1388年の 所謂 無慈悲한 議會(Merciless Parliament)에서 王의 寵臣들의 勢力을 꺾고 Tresilian은 處刑되고 de Vere와 de la Pole等은 國外로 亡命하였다가 그곳에서 死亡하게 되고, 이들 貴族들이 約 1年間 治世하게 되었다.

Richard II는 이 Rudcot Bridge 戰鬪와 寵臣들이 裁判받는 동안 잠시 權座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나, 貴族評議會에서 後繼者選任에 合意에 到達하지 못했다.

王은 默黙히 背後에서 坐視하고만 있다가 나이 22歲가 된 王은 後見 政治에서 脫皮하고 自治할 것을 宣言하였다.

貴族들의 聯政도 崩壞하고, Gaunt도 Spain에서 歸國하니 이로부터 約 7年 동안은 合理的인 和合이 이룩되어 施政도 제대로 伸張하게 되었다.

Shakespeare가 執筆한 Richard II에는 그의 治世 마지막 2年을 다루어 以上이 大略 劇의 始作前의 史實이었으니, 叔侄間이 外面上으로는 和睦한듯도 하였으나 事實은 恒時 反目하고 機會있는대로 報復할 것만 念頭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國民의 興望은 老練한 攝政인 Gaunt에게 쏠리게 되고 年少하고 豪華燦爛한 것과 浪費만을 일삼고 있는 王에게는 失望하고 있는 사람이 大部分이었다.

You would have bid me argue like a father.
O, had it been a stranger, not my child,
To smooth his fault I should have been more mild:
A partial slander sought I to avoid,
And in the sentence my own life destroyed.
Alas, I looked, when some of you should say,
I was too strict, to make mine own away:
But you gave leave to my unwilling tongue,
Against my will, to do myself this wrong.

[I. 3, 235~245]

政治人으로 公私를 區別할 줄 알고 親子息에 對해서도 他人보다 情에 사로잡히지 않고 嚴格한 父親의 態度를 取하는 것은 過去에 若干의 失手が 있었다 하더라도 現在로서는 Gaunt에게는 허물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그는 愛國思想이 透徹하고 王權神授說도 徹底히 信奉하는고로 暫時도 이 두가지 信條를 잊고 있지 않은듯 하였다.

Gaunt. O, but they say the tongues of dying men
Enforce attention like deep harmony:
Where words are scarce, they are seldom spent in vain:
For they breathe truth, that breathe their words in pain.
He that no more must say is listened more
Than they whom youth and ease have taught to glose:

More are men's ends marked than their lives before:
 The setting sun and music at the close,
 As the last taste of sweets, is sweetest last,
 Write in remembrance more than things long past;
 Though Richard my life's counsel would not hear,
 My death's sad tale may yet undeaf his ear.

[II. 1. 5~15]

臨終에서도 老政治家는 國家의 安危를 생각하는 衷情에서 直諫하는 것을 잊지 않고 德義에 찬 忠告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作家가 特히 이런面에 留意하여 叔侄間의 顯格한 差異를 드러내기爲해서도 國民의 信望과 支持를 받는 叔父와 輕舉妄動하고 不德한 王의 言辭와 舉動을 羅列하여 Richard II가 얼마나 王으로서 不適格한가를 잘 表現하고 있다.

Gaunt: This blessed plot, this earth, realm, this England,
 This nurse, this teeming womb of royal kings,
 Feared by their breed and famous by their birth,
 Renowned for their deeds as far from home,
 For Christian service and true chivalry,
 As is the sepulchre in stubborn Jewry,
 Of the world's ransom, blessed Mary's son;
 This land of such dear souls, this dear dear laud,
 Dear for her reputation through the world,
 Is now leased out, I die pronouncing it,
 Like to a tenement or pelting farm:

[II. 1. 50~60]

世界에서도 比할 바 없는 燦然한 歷古와 悠久한 傳統을 지닌 祖國에 對한 無限한 愛國心을 나타내고 同時에 當面한 초라한 모습을 慨嘆하고 있으며 祖國의 前途를 근심하고 있다.

이와는 反對로 Richard II는

K. Rich. A lunatic lean-witted fool,
 Presenting on an ague's privilege,
 Darest with thy frozen admonition
 Make pale our cheek, chasing the royal blood,
 With fury from his native residence.
 Now by my seat's right royal majesty,
 Wert thou not brother to great Edward's son,
 This tongue that runs so roundly in thy head.

Should run thy head from thy unreverent shoulders.

[II. 1, 115-123]

不敬不遜할뿐만 아니라 함부로 威嚴만 내세우고 있으니 王의 權威도 喪失하게 되고 前功이 많은 叔父에게 對한 破廉恥한 言辭는 王權에 對한 重大한 打擊이 멀지 않을듯 하다.

더구나 Richard II가 叔父의 危重함을 알고

K. Rich. Now put it, God, in the physician's mind,
To help him to his grave immediately!
The lining of his coffers shall make coats
To deck our soldiers for these Irish wars.

[I. 4. 58~61]

叔父의 臨終에 哀悼의 뜻은 나타내지도 않고 엉뚱한 慾心으로 叔父 財産으로 軍備를 다져 Ireland 出征에 보태겠다 하니 Richard II가 計劃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前途에는 暗雲이 끼기 始作하고 國事를 맡길 Duke of York도 處事의 不當함을 指摘하나 이를 듣지 않고 스스로 만든 險峻한 가지 덩굴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는 꼴 이 된다.

II. 從兄弟(Richard II와 Bolingbroke)

Shakespeare와 Marlowe 사이에는 作品을 中心으로 類似한 바가 적지 않다. The Merchant of Venice와 Jew of Malta도 그렇거니와, Richard II와 Edward II는 더욱 相似한 點이 많다.

Richard II는 King John과 同年代인 1594~6年頃の 作品으로 推定되며 Marlowe의 Edward II는 1593年으로 되어서 Shakespeare가 Edward II를 읽었고 이 作品에서 많은 影響을 받았으리라고 짐작되나, Shakespeare는 이미 1590~2年頃に Henry VI 3部作을 完成하였으므로 그 反對라고도 主張할 수 있으니 이 두 作家間에 先後輩를 따지기 어렵고 더구나 特定 作品에서 누가 影響을 끼쳤는지는 밝히기 容易한 일이 아니다.

이 두 作品의 格別한 類似性은 王權에서 退位한 것인지 篡奪된 것인지가 問題인데, 이것도 Edward II나 Richard II의 立場에서는 決코 退位한 것이 아니고 篡奪當한 것으로 들리고 있으나 事實은 正確하게 따지기는 困難한 點이 많다.

Edward II에서는 Gaveston이라는 外國人寵臣에게 心醉되어 모든 爵位와 權力을 그에게 쏟아서 빛어지는 王后 Isabella와 議會의 猛烈한 非難과 葛藤에도 不拘하고, 暫時도 그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 Edward II는 無理해서 다시 그를 불러들이나 扶助할 수 없게 되니, 또다른 젊은 寵臣 Spenser를 起用해서 頑強히 反對하는 貴族들을 一但 敗北시키고 首班格인 Warwick와 Lancaster를 斬首한다. 이때 젊은 Mortimer가 王後와 合作하여 一時 France로 避難하였다가 다시 勢力을 糾合하여 英國으로 侵入하여 Edward를 敗北시키고 逮捕하는데, Richard II가 Michael de la Pole과 Edward de Vere 같은 親舊를 寵臣으로 삼고나서 議會 및 貴族評議會와 不知葛藤이 繼續되어 드디어 이들이 流配地에서 死亡하게 되고 Bolingbroke가 流配되었다가 歸國하여 王軍을 擊破하는 것은 매우 비슷하다.

Richard II와 Henry of Bolingbroke는 從兄弟로 나이가 같으며(1367年生), 生活環境도 相似하였을 것인데 性稟으로 보면 顯著한 差異點이 있다. Richard II는 恒時 말이 많고 若干의 詩人氣質로 風流를 아는 듯하고 感情에 흐르기 쉬운 人物이나 이와 反對로 Bolingbroke는 寡黙한 사람으로 말이 없이 行動으로 實踐하는 사람이다.

貴族中에서 王의 顧問格인 Gloucester, Arundel과 Warwick 등이 事事件 王의 舉動이 不當함을 指摘하고 正面對決하고 하니 Richard II도 乃終에는 이들을 모두 拘束하게 된다. Bolingbroke는 그 當時만 해도 存在가 뚜렷하지 못하고 父親이 Spain에서 歸國하자 政治一線에는 敢히 參與하지 못하고 Lithuania에서 十字軍에 加擔하여 時間을 보내거나 Jerusalem으로 聖地巡禮하는 等 比較的 閑暇히 歲月을 보내고 있었다.

劇의 始作이 되는 Bolingbroke와 Mowbray의 言爭이 불씨가 되어 나중에는 Richard II의 廢位까지 몰고 오게 된다. 겉으로는 이 두 사람은 서로가 叛逆者이며 國庫金을 濫用하였다고 非難하고 있으나, 그 보다는 Thomas of Woodstock(1355~1397) 即 Duke of Gloucester의 죽음에 對한 原因究明에 있는 듯한데 古實에 依據하면 이 事件에는 Richard II가 깊이 關與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때 Richard II가 萬若 勇斷을 내릴 수 있어 Bolingbroke와 Mowbray間에 決鬪를 끝까지 시킬 수 있었던지 아니면 流配라도 嚴하게 하였던들 廢位까지는 앞되었거나 늦출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Richard II가 決鬪를 命命하였다가 取消하고 Mowbray에게는 終身流配를 시키고 Bolin-

gbroke에게는 처음에는 10年流配에서 다시 4年을 減刑하는 優柔不斷한 態度를 나타내는 것은 어찌보면 國家의 安寧秩序와 平和維持를 施政方針으로 내세운 듯 하나 內面으로는 叔父인 John of Gaunt에 對한 威壓感과 그의 治政의 人氣等を 考慮한 것이라 하겠다.

Richard II는 平時의 浪費濫을 고치지 못하고 Ireland로 出征하는데 軍資金이 不足하자 作故한 Gaunt의 莫大한 財産을 重臣들의 挽留도 뿌리치고 沒收한 것이 큰 禍根이 되어 流配中인 Bolingbroke으로 하여금 歸國할 좋은 口實을 주었으며 Bolingbroke는 先代의 偉業으로 人氣가 上昇하고 있었으니 致處에서 그를 따르는 群衆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가고 있었다.

1399年 7월에 Bolingbroke가 Yorkshire海邊 Ravenspun近處에 上陸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Lancaster家를 熱熱히 支持하던 勢力이 있는 곳으로 그의 先人을 追慕하는 追從者들이 줄을이어 그가 南下함에 따라 大勢力을 힘들이지 않고 이루게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朝廷에서는 唐慌하여 Ireland에 있는 Richard II에게 傳達하고 重臣들은 西쪽으로 가서 還國하는 그를 맞이할 셈이었으나 途中에서 各己 中止 避身하고 만다.

이런 官軍의 움직임을 안 Bolingbroke도 方向을 西便으로 잡아 Richard II의 進路를 遮斷하여 王軍이 援軍과 接觸하지 못하도록 機先을 制壓하는데 成功하였다. Berkeley에서 優柔不斷한 York를 承服시키고 Bristol에서는 殘餘官軍을 逮捕處刑하니 大勢는 이미 決判이 난 셈이다.

Bolingbroke가 언제 王權篡奪의 꿈을 지녔는가는 누구도 알 길이 없으며 그 自身도 어느 時間을 期해서 말하기는 困難할 것이다. 舊地位와 財産의 還收만을 口實삼아 王命을 어기고 還國하여 보니 平時 그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王權이 意外로 崩壞一步即前에 處해 있는 것을 感知하였고, 民心은 離脫된지 오래되었고 더구나 Richard II가 死亡하였다는 浪說까지 퍼지게 되어 官軍에서는 脫營兵이 日增하여 이들이 Bolingbroke軍에 合勢하니 Richard II의 滅亡은 加速化될 道理밖에 없었다.

이러한 王權의 危機가 傾刻에 놓여 있는데도 不拘하고 王權神授說만 鐵石같이 믿고 쓸데없는 말재주와 三文試作에나 沒頭하고 冷嚴한 現實을 外面하려는 王 Richard II의 앞날은 다만 그의 終末을 告하는 挽鐘소리만 남은 듯하다. 急去還國할 때도 感想에만 잠기고 한편 寄蹟이 일기만 期待하는 그에게 王權維持는 커녕 自身の 保身도 不可能한 形便이

었다.

As a long parted mother with her child
Plays fondly with her tears and smiles in meeting,
So weeping, smiling, greet I thee, my earth,
And do thee favours with my royal hands.

[Ⅲ. 2, 8~11]

This earth shall have a feeling, and these stones
Prove armed soldiers ere her native king
Shall falter under ful rebellion's arms.

[Ⅲ. 2. 24~26]

現實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다만 天道가 無心하지 않는 限 王權은 永
遠無窮하리라는 것만 慌唐無稽하게 믿고 있으니 이런 초췌한 모습은 보
기에 도 민망할 뿐 아니라 可憐까지한 것이다.

굳게 믿고 있던 神授說이 헛되고 보니 미리 自罪하여 스스로 敵에게
屈服하니 王冠도 따라서 Bolingbroke의 머리 위로 올라간다. 幸福의 수
레바퀴는 돌아서 Richard II가 밑으로 깔리고 Bolingbroke가 頂上으로 솟
아오르는 것은 Richard II가 말한대로

K. Rich. Give me the crown. Here, cousin, seize the crown;
Here, cousin, on this side my hand; on that side thine.
Now is this golden crown like a deep well,
That owes two buckets filling one another;
The emptier ever dancing in the air,
The other down, unseen and full of water:
That bucket down and full of tears am I.
Drinking my griefs, whilst you mount up on high.

[Ⅳ. 1, 181~187]

資格없이 王座에만 戀戀하고있는 사람은 누구나 Richard II 같이 敵
兵에 依한 陷落에 앞서 自滅自壞의 길로 向하는 수가 더욱 많은 것이다.

III. Bolingbroke와 神授說

王朝에서 第一禁已로 하는 것이古今을 莫論하고 逆敵謀議일 것이니
三族을 滅한다는 重嚴한 罰로 다스리는 것도 永久執權을 爲한 手段의
하나일 뿐이다.

Bolingbroke가 王權을 篡奪하는 데는 Holinshed의 年代記에 따르면 더
욱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8월에 Richard II를 London으로 데려

Not all the water in the rough rude sea
 Can wash the balm off from an anointed king:
 The heath of worldly men cannot depose
 The deputy elected by the Lord.

[Ⅲ. 2. 54-57]

歷史와 傳統만 굳게 믿고 現實에 對處할 道理나 手段은 全히 講究하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고 초조해 보이기 始作한다.

Bolingbroke는 처음 流配地에서 隱密히 上陸한 것은 아버지의 地位와 財産만 還收할 目的이라고 한 것이 王權에까지 擴大되고 보니 國民들이 納得할 수 있는 法統을 찾아야만 했다.

이미 70年前에도 Richard II의 曾祖父인 Edward II가 退位 當한 적은 있었으나 그때의 後繼者는 自身の 아들인 Edward II였으니까 別로 法統 같은 것은 問題삼을 수 없이 自然스런 政權移讓이 되었다.

이와 比較한다면 Richard II는 無嗣였으나 血統으로 따지면, Bolingbroke는 둘째叔叔 Gaunt의 아들로 첫째叔父인 Lionel of Clarence의 曾孫으로 7歲인 earl of March가 있었다. 따라서 法律家等を 動員하여 Bolingbroke가 即位하는 것을 合法化시키려 努力하였다.

이들이 窮理 끝에 案出해낸 것은 Bolingbroke가 血統上으로도 옳다고 억지로 꾸며내어 外家로 따져 Lancaster家の 첫 earl인 Edmund Crouchback이며 Edward I의 동생의 後孫이 自己의 母親인 Blanche of Lancaster라고 걸맞지도 않게하다 無理한 造作으로 그치게 되며, Bolingbroke는 다시 武力으로 王冠을 奪取하려들자 側近者들이 놀라서 말리며 이렇게 되면 後患이 두려우며 누구이고 勢力만 가지면 王權을 掌握하게 될 것이라 하자, 마침내 매우 애매모호한 말이나 自己도 親戚 親舊들의 도움으로 神의 權利를 通해서 王權에 挑戰한다고 宣言하였다.

Car. My lord of Hereford here, whom you call king,
 Is a four traitor to proud Hereford's king:
 And if you crown him, let me prophesy,
 The blood of English shall manure the ground,
 And future ages groan for this foul act:
 Peace shall go sleep with Turks and infidels,
 And in this seat of peace tumultuous wars
 Shall kin with kin and kind with kind confound;
 Disorder, horror, fear and mutiny
 Shall here inhabit, and this land be called
 The field of Golgotha and dead men's skulls. [W. 1. 134~144]

The Bishop of Carlisle는 單只 尊王思想이 濃厚하여 篡奪者를 呪咀하는 말로 보기 어려우며, 前例없이 王權을 함부로 篡奪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록 成功한다 하더라도 無秩序 混亂 殺戮이 恣行될 것이 確實하다는 豫言으로, 이 말은 앞으로 展開될 英國史上 가장 混亂期인 York와 Lancaster兩家를 中心으로서 30年戰爭인 薔薇戰爭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린다.

IV. 王과 詩人

Richard II의 一貫된 性質을 特記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詩人の 氣質을 잃지 않고 있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事物을 直觀함에 있어 利害關係나 法的 秩序 또는 政治의 影響같은 것에 細心한 注意와 分別力 있는 判斷이나 또는 重臣들의 諫言을 率直히 받아들여 國家의 將來나 王權確立에 힘을 기울일 最大의 任務에는 허술한 點이 許多하였다.

危機에 處해서는 冒免할 通理는 講究함이 없이 漠然한 神授說만 信奉하고 있던 것도 이 예이며, 恒時 平和愛護함을 自處하여 暴力과 亂暴한 行動을 避하였으나 事實을 綿密히 따지고 보면 結果는 이와 反對였다. 作家인 Shakespeare도 僞善 虛僞 恐怖같은 것이 流血보다도 나쁜 平和의 敵이라는 것을 分明히 例示하고 있는데, Richard II가 겉으로 보인 不偏不黨한 處事는 純全히 거짓이었다. Bolingbroke와 Mowbray의 決鬪를 中斷시키고 Bolingbroke의 流刑量을 減한 것도 慈悲처럼 보이게 하나 그 實은 罪意識에 依한 恐怖 때문이었고 이러한 Richard II의 行動은 王自身의 運命을 決定지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來到할 薔薇戰爭의 씨앗까지 뿌린 셈이다.

Richard II 自身이 수다스럽고 平時에도 할 말 안할 말 區別없이 말수가 많은 것도 큰 缺點의 하나로 指摘되는데 叔父인 Gaunt가 臨終에 이르러

Old Gaunt indeed, and gaunt in being old;
 Within me grief kept a tedious fast;
 And who abstains from meat that is not gaunt;
 Watching beads learners is all gaunt;
 The pleasure that some fathers feed upon
 Is my strict fast —I mean, my children's loots—
 And therein fasting hast thou made me gaunt.
 Gaunt am I for the grave, gaunt as a grave,
 Whore hollow womb inherits nought but bones.

[II. 1. 74~83]

라고 길게 늘어놓으니, 어찌 죽어가는 사람이 함부로 말재주를 부리며 또 어찌 살아있는 나에게 阿諛을 하느냐 하며 더구나 醫師에게는 叔父를 빨리 무덤으로 引導하라는 것은 (To help him to his grave immediately) 實로 妄言이며, 더구나 詩人이며 清雅해야 하겠는데 그는 利慾貪心에 사로잡힌 俗物根性이 길게 깔려있어서 叔父가 殞命하자마자 그의 은갖 財産을 區別없이 全部 沒收하여 스스로의 墓穴을 스스로 파는 셈이다.

Richard II의 말이나 글에는 不必要한 語句, 糶糊한 表現과 過度한 修飾語를 羅列하여 一見 詩想이 豊足한듯 하나 心理的인 不正과 점에질린 사람이 急할 때 吐하는 分別없는 言辭로 그의 말은 자세히 吟味하면 뼈대없는 토막토막의 連結로 밖에 되지 않는다.

神授說만 믿고 있다가 危脅을 느끼자 그는 어린애 같이 行動하여, 엄마의 팔 속으로 숨고 아빠가 오면 혼내주겠다는 것과 같은 行動을 하고 있다.

North: My lord, in the base court he doth attend
To speak with you, may it please you to come down.
K. Rich: Down, down I come, like glistering Phaeton,
Wanting the manage of unruly jades.
In the base court? Base court, where kings grow base,
To come at traitor's calls and do them grace!
In the base court? Come down? Down, court! down, king!
For night owles shrill where mounting larks should sing.
[III. 3. 176~184]

가장 深刻하고 重且大한 瞬間에도 그는 말재주나 부리고 있으니 王權이 어찌 될 것인지는 可히 짐작이 간다. 하기가 民心이 離脫하고 軍隊가 脫營하여 敵軍으로 가는 判局에는 分別력과 判斷이 確實한 사람이라도 어찌할 道理가 없었을 것이나 이런 地境에 이르기 前에 손을 쓸 수는 있었을 것이다.

막바지에 이르러

Boling. Are you contented to resign the crown?
K. Rich. Ay, no; no, ay:

[III. 1. 199~200]

할 때 Richard II의 心情을 如實히 나타내는 場面도 없다. 어찌 들으면 王冠에 對하여 아직도 戀戀한 듯도 하나 그 實은 겁에 질려 어찌 할 줄

모르고 하는 말이다. Richard II가 지금껏 살아온 것이 名目上으로만 王이였지 叔父 Gaunt나 그밖의 重臣들의 그늘 속에 가려 한번도 앞줄에 나서 벌을 제대로 보지 못한 탓이다.

더우기 그가 이러한 優柔不斷함과 비겁함을 드러내는 것은 相對적으로 Bolingbroke에게는 더욱 거센 힘을 일으키고 前에는 想像조차 못하던 것도 너끈히 해치울 勇氣를 북돋은 셈이 되니까 따지고 보면 Bolingbroke가 惡을 恣行하게 된 것은 그가 시킨 셈이다.

史實에 따르면 Richard II의 王妃는 Isabella of France(1389~1409)로 이들이 1396년에 結婚하였으니까 밀기 어려우나 7歲였다. 그러나 Shakespeare는 그를 成熟한 女人으로 登場시키고 庭園師와 問答하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Richard II가 本分에 얼마나 소홀하였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Gard. and Bolingbroke
 Hath seized the wasteful king.
 O, what pity is it that he had not so trimmed
 And dressed his land as we this garden! At time of year
 Do wound the bark the skin of our fruit trees;
 Lest, being over-proud in sap and blood,
 With too much riches it confound itself;
 Had he done so to great and growing men
 They might have lived to bear, and he to taste
 Their fruits of duty: superfluous branches
 We lop away, that bearing boughs may live:
 Had he done so, himself had borne the crown.
 Which waste of idle hours hath quite thrown down.

[III. 4, 54~66]

國政도 나무가꾸기와 같아서 不必要한 걸가지를 剪枝하고 雜草를 除去하고 除蟲消毒해야만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맺게 되는 法같이 王은 꼭 해야 할 일 卽 民心을 살피고 國民이 무엇을 바라나를 區別해야만 했다면, 卑賤한 一個 庭園師의 입에서도 國事를 다루는 哲學이 있는데 어찌 國王으로 經綸이 없을소냐 하고 비웃기도 하며 慨嘆하고 있는 것이다.

Richard II는 이와 같이 無能하였을 뿐만아니라, 自身의 限界나 領域을 알지도 못하고 걸맞지도 않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自己의 不適合한 役割은 모르고 큰 자리를 지킬 때 일어나는 無秩序를 되풀이 하다 목숨도 건지지 못하는 慘變을 스스로 自招하고만 것이다.

V. 篡奪과 Henry IV의 聖地行

Richard II를 두고 退位나 篡奪이냐는 容易하게 判別하기 힘들다. 그러나 Richard II를 中心으로 하면 外形上으로는 四寸인 Bolingbroke에게 讓位한 것이나 事實은 王軍이 敗退하고 Bolingbroke가 實力으로 國權을 掌握한 셈이다.

Bolingbroke便에서도 可及의이면 篡奪보다는 讓位를 願하여 여러가지 窮理 끝에 王統 法統을 따져 보았으나 억지로 는 될 수 없자, 하는 수 없이 武力으로 國權을 掌握하였으니 分明 篡奪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滿足하지 못하고 Richard II를 殺害해 없앴으로서 後患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나 直接 行動까지는 못하고, Exton이 이런 擧事를 해 주었으면 하고 內心 바라고 있었다.

막상 Exton이 이 일을 完遂하고 王의 屍體를 그의 앞에 내놓으니

Boling. They love not poison that do poison need,
nor do I thee: though I did wish him dead,
I hate the murderer, love him murdered.
The guilt of conscience take thou for thy labour,
But neither my good word, nor princely favour:

[V. 6, 38~44]

教唆하고 나서 그 일을 遂行한 사람을 거북해하는 일은 흔히 있게 마련이다. 자리를 공고히 지키기 위한 것인데 스스로가 殺人者의 屢名은 쓰기 싫어 從僕에게 돌림으로 罪科는 避하고 그 結實은 自己가 따먹겠다는 所行이다.

作家도 그러했지만 觀衆이나 讀者도 Richard II가 걸맞지 않는 높은 地位를 억지로 지키고 있는 동안 지루하고 실증을 내었으나 篡奪當하고 나니 오히려 同情心이 그에게 쏠리게 된다.

寡黙하고 冷徹하며 每事에 틀림없는 計算의인 Bolingbroke에게는 好感이 갈 수 없고 史上類例없이 지금까지 萬民이 信奉하던 王權神授說을 무너뜨리고 臣下로서 王을 殺害하기 까지에 이르렀으니 그 罪科를 무엇으로도 報償할 길도 없고 누구도 容恕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Richard II에 對해서는 同情心 뿐만아니라 尊敬心마저 갖게 된다. 王冠을 빼앗긴 다음 갖은 苦生을 하며 그는 王이 아닌 平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하지 못한 手段과 方法으로 Henry IV로 即位한 Bolingbroke에게

는 心中 不安함이 그칠 사이 없었다. 爲先 아들인 Prince Hal이 放浪人格인 Sir John Falstaff와 作黨이 되어 모든 惡行 뿐만 아니라 王子로서는 想像 못할 暴行 稱盜行脚을 되풀이 하고 王宮을 離脫하여 王子를 對面한지 오래동안 되도록 消息조차 漠然하다.

Richard II에게 끝까지 忠誠을 다한 Wiltshire, Bushy, Green 등을 모조리 處斷하여 王黨派의 勢力을 根滅시켜 政局을 安定시키려 하였으나, 뜻밖에 叔父인 York의 아들 Aumerle가 그를 殺害하고 Richard II를 다시 復辟시키려는 陰謀가 綻露된다.

이때 Bolingbroke는 毅然한 姿勢로 從弟인 Aumerle를 容恕하고 넓은 慈悲心を 나타내는듯 하였으나, 그의 心中에서는 이와같은 허술한 일을 意圖의으로 함으로서 歡心を 사그는 곧 있을 Richard II의 殺害도 正當化할 수 있는 計策을 짜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奸智에 能한가를 나타내고 있다.

Bolingbroke가 實吐한

By what by-paths and indirect crook'd ways
I met this crown

[King Henry IV, -Part II, W. 5, 185~186]

갖은 苦楚와 試鍊을 겪고서도 正正當當한 方法은 擇할 수는 없게 된 때인 만큼 間接으로 部下를 시켜 代行하여 얻은 王冠이니만큼 이 王冠의 앞날에는 風波가 가라앉을 날이 없을 것이고 英國史에서도 가장 어지러웠던 30年間の 薔薇戰爭의 씩이트기 始作한 것도 이때부터 었다.

그가 無理하게 억지로 獲得한 王冠을 永遠히 지닐 생각을 하지 않고 聖地行을 꿈꾸게 되는 것은 自己가 저지른 莫重한 罪科를 或時나 容赦 받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改過遷善하는 態度도 쉽사리 許諾되지 않아 그後 곧 國政이 混亂하게 되어 이꿈도 이룩할 수 없게 된다.

사람이 生存을 繼續하는 동안 所望 所願을 할 수 있겠으나, 永遠한 幸福 悠久한 滿足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있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結

Richard II는 우리에게 많은 感銘을 주는 作品이다.

그는 어린王으로 철모르고 幻年時代를 보내나 親政을 해보려고 親知에게 爵位를 주어 側近에 두고 努力도 해 보았으나 議會 重臣들과 摩擦

等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特히 叔父 John of Gaunt에게는 精神的인 壓迫感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叔父 Duke of Gloucester를 죽인데 連關된 罪意識에서 언제나 그의 앞에서는 비겁함을 느낀다.

겉으로는 詩情이 豊滿하여 雅趣나 風流를 즐기는듯 했으나 世俗的인 物欲도 적지 않았고, 어려서 부터 豪華 奢侈에 몸이 젖어 形便없이 浪費만 거듭하고 國庫가 蕩盡된 것도 모르고 終身王으로 王權神授說만 믿고 모든 일을 獨善的으로 恣行하니 그 終末이 빨리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Richard II의 敗亡은 Bolingbroke의 武力에 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簡便 Richard II 自身이 스스로 王冠을 벗어버린 것으로도 생각된다.

여러 阿諛輩와 共謀하여 永久集權을 꿈꾸고 있는 것이 어찌 헛되고 물거품같은가를 如實히 나타내며, 時間上으로 制限되어 있는 人間이 無限하고 永劫의 未來에 挑戰한다는 것은 한낱 웃음거리 밖에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Henry VI와 같이 自己의 分수와 限界를 짐작하고 그 範圍內에서 行動하는 것이 저으기 賢明한 일이라 하겠다.

끝으로 우리의 政治家들에게도 Shakespeare 史劇中에서도 이 Richard II를 一讀할 것을 勸하고 싶으니 얻는바 클 것으로 確信하기 때문이다. 이 劇의 主人公은 Richard II도 Henry of Bolingbroke도 아니고 이들의 祖國인 英國이며, Charles de Gaulle將軍이 말하듯이 祖國은 恒常 아름답고 平和스럽고 勇敢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愛國者들의 所望이기 때문이다.

參 考 書 籍

- Frank Kermode, edit., *Four Centuries of Shakespearian Criticism*. An Avon Library Book.
- E.M.W. Tillyard, *Shakespeare's History Plays*. A Perequine Book.
- E.FC. Ludowyk, *Understanding Shakespeare*. Cambridge at the Univ. Press. 1964.
- Engare M. Waith, *Shakespeare, The Histories*. A Speetrum Book.
- Richard Hosley edit, *Shakespeare's Holinsher* Capricom Books N.Y.
- M.M. Resce, *The Cease of Majesty*. London Edward Arnold Ltd.
- Jan Kott,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A Doubleday Anchor Book.

- Edward P. Vandiver, Jr., *Highlights of Shakespeare's Plays*.
- Arthur Migener, edit., *Teaching Shakespeare*. A Mentor Book.
- Caroline Spurgeon, *Shakespeare's Imagery*. Cambridge Univ., Press.
- E.K. Chambers, *Shakespeare A Survey*. A Drama Book.
- Leonard F. Dean, edit., *Shakespeare, Modern Essays in Criticism*. Oxford Univ. Press.
- Donald V. Mehns, *Shakespeare's English History Plays*. Genealogical Table Folger Shakespeare Lib.
- Mark van Doren, *Shakespeare*. Henry Holt and Company, N.Y.
- Horner A. Watt, Karl J. Holzknecht, Raymond Ross, *Outlines of Shakespeare's Plays*, Barnes and Noble, Inc.
- Harold C. Goddard, *The Meaning of Shakespeare*. Phaenix Books, The Univ. of Chicags Press,
- Peter Saccio, *Shakespeare's English Kings*, Oxford Univ. Press.
- Oscar James Campbell, edit., *The Reader's Encyclopedia of Shakespeare*. Thomas Y. Crowell Company.